



‘분단체제론’
백낙청 명예교수

“‘촛불정부’ 없었으면 남북관계 개선 힘들었을 것”

‘분단체제론’은 계간 ‘창작과비평’ 명예 편집인 백낙청(80)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창해온 이론이다. 6·25 동안 이후 각기 다른 남북 체제가 분단현실을 어떻게 재 생산해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실험은 무엇인지 돌아본다.

백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정동에서 “기쁘겠다는 축하 인사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최근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서 받는 인사다. “제가 축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분단체제론’이 맞았다는 증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백 교수의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현실적 조건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요하게 얘기한다. 그는 남북 화해 무드에 이어 북미 관계가 풀리는 동시에 비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분단체제론과 관련 자신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세 가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우선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군사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서, “안정적인 분단 체제가 다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또 하나는 ‘시민 참여형’ 통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교류는커녕 남북 대화도 불가능 상태였다. 최근 관문점 선언은 남북 최고 권력자들이 만난 것인데 ‘시민’ 운운하는 것이 낯설 법도 하다.

그러나 백 교수는 남북 교류와 교섭에 시민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점진적인 평화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심할 때는 정부를 갈아치운다든지 등이 시민참여의 기본”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촛불 항쟁’, 즉 ‘촛불 혁명’이야말로 “시민 참여의 임무와 책무를 멋들어지게 수행했던 것”이라고 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계산한 것이지 남북의 ‘촛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남북관계 개선)은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마지막은 ‘비핵화’다. “비핵화는 얼마 전까지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남북 연합이 안 되고는 비핵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비핵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반도 체제 분석·변혁 실천전략 연마한 책 펴내
분단체제론 관점으로 정리

백 교수는 출판사 창비가 최근 펴낸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에 참여했다. 한반도의 체제 분석과 변혁의 실천전략을 연마한 책이다. 다양한 세대의 교사, 교수,

문인, 연구자, 시민운동가, 편집자 등 총 30명이 7차에 걸쳐 진행한 공부모임 ‘창비 담론 아카데미’ 결과물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와 한국사회는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반도 변혁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의 관점으로 정리했다.

총 7차례의 모임 중 홀수차인 1, 3, 5회에는 참가자들끼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짝수차인 2, 4, 6회에는 이 토론결과에 대해 백 교수가 강평과 해설을 맡았다.

이를 개인의 작업이라기보다 집단 지성의 산물이라고 평한 백 교수는 자신이 제기해온 남북연합이 진행 중이라고 봤다. “연방제와는 달라요. 남과 북에 각각 정부, 헌법, 군대가 있는 상태에서 자주 만나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 이후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했어요. 북한은 여기까지 와서 되돌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3차 종전선언을 하면 이 모멘텀은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시스

일상의 아름다움 19세기 동서양의 예술展

일상의 아름다움이란?

김제문화예술회관서 16일까지 전시회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4일부터 16일까지(13일간) 김제시 지역민을 위한 예술작품 전시회 ‘일상의 아름다움 19세기 동·서양의 예술展’이 열리고 있다.

김제시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시기획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수준 높은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동양의 분청사기, 옹기와, 영국 빅토리아 시대 미술작품이 전시되며

‘분청사기’는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장동국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옹기’는 전북무형문화재 제53호 부거리 옹기 장 ‘안시성’ 작가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영국 빅토리아 시대 작품’은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시대 제작된 ‘오리지널 원화’ 작품을 빅토리아 아트 전문 취급사인 영국의 WALL SPACE ART.LTD의 국내 유일 수입사이자 (주)제이엘아트에서 제공하여 기획·전시한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김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흥을 높여주고 나아가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 작품은 친구와 연인, 그리고 학생들은 물론 모든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운영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전주대와 산학협약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이병호)은 전주대학교 K-History 2H 핵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이상균)과 산학협력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우수인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 실무연수를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각종 정보교류를 실시한다.

2015년 12월 국립으로 전환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미륵사지와 익산지역 출토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으며, 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문화재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회관 하반기 1차 수시대관 1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예술회관의 2018년 하반기 1차 수시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예술회관 전시 대관은 많은 미술 단체에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폭넓게 제

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대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관 대상은 1층 기스라1, 기스라2, 2층 차오름1, 차오름2, 미리내 등 총 5개의 전

사실이며, 오는 14일까지 방문접수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는 재단 3층 사무처(경영지원부)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대관 신청서 및 계획서를 내려받아 제출

하면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와 경영지원부 전화(063-230-741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는 “이번 대관 모집에 도내 미술 단체 및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